

2023년 도 제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3년 3월 23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창 용 의 장(총재)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주 상 영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박 기 영 위 원
신 성 환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강 승 준	감사	배 준 석	부총재보
	민 좌 홍	부총재보	이 종 렬	부총재보
	김 웅	부총재보	양 석 준	외자운용원장
	김 제 현	커뮤니케이션국장	최 창 호	조사국장
	김 인 구	금융안정국장	홍 경 식	통화정책국장
	박 종 우	금융시장국장	오 금 화	국제국장
	박 양 수	경제연구원장	민 준 규	법규제도실장
	최 용 훈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최 문 성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5호 - 2022년도 연차보고서(안)>

(1) 담당 국장이 「한국은행법」 제102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정부에 제출 및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2022년도 연차보고서(안)을 확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3월 13일 개최된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관련부서는 2022년중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과 그에 따른 당행의 정책 대응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보고서를 구성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아울러 당행 업무 및 조직 경영 전반을 균형있게 기술하는 가운데 조사연구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강화, 내부 경영 개선 등 주요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첨언하였음. 또한 하이퍼링크와 QR코드 수록을 확대하여 당행 홈페이지, 블로그 및 소셜 미디어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위원들은 이번 보고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잘 정리되었으며 여타 자료와의 연계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숫자로 보는 2022’와 각 장의 요약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과 관련해서 서술 내용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이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I. 경제 동향’ 부분에서 2022년중 국내성장 및 물가, 환율 상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과 그래프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II. 업무 현황’ 부분에 금융안정 상황 설명,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의 서술을 보완하는 한편, ‘II. 업무 현황’ 및 ‘III. 경영 상황’ 부분에서 당행의 주요 회의·행사에 대한 서술과 사진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주었음.

그 밖에도 일부 위원은 보고서내 서술과 그림의 재배치, 그림의 디자인 개선,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표현 등을 통해 가독성을 제고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 수정·보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22년도 연차보고서(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2022년도 연차보고서(안)(생략)

나. 보고안건

<보고 제20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20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보고내용 : 별첨)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는 3월 15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우선 여러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가 새로운 분석방법을 통해 금융안정 관련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등 분석의 정도가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음. 또한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등 최근 이슈도 속보성 있게 다뤄 보고서의 시의성을 높인 점도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하였음. 다만 보고서가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되어 전달력이 높아진 측면도 있으나 일부 파트의 경우 내용이 지나치게 축약되어 독자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최근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분석 사례를 참조하여 향후 보고서의 속보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보고서의 분석 시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음.

또한 일부 위원은 보고서 작성에 시간제약은 있으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가 금융안정 상황에 미칠 파급력을 감안할 때 관련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민간신용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과거 추세와 비교하고 있는데, 그간의 경제성장 속도 및 부채증가세 등이 지속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여타 다양한 지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한편 일부 위원은 최근 국제기구인 BIS 기준의 가계부채 DSR지표가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의 DSR지표와 자칫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산정방식 등 차이점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 밖에 일부 위원은 동 보고서가 유용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어 자료 업데이트 및 추가분석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통화정책방향 참고자료 및 BOK이슈 노트 등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하였으며, 앞으로도 면밀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과제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설명후 접수

(별첨)

「금융안정 상황점검」 관련 보고내용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자산가격 조정 등으로 금융불균형 위험이 축소되면서 중장기적 취약성은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나, 경기둔화, 부동산시장 위축, 환율 급변동 등으로 경제주체의 신용위험 및 대외부문에 대한 경계감이 증대되어 금융불안지수가 위기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특히 최근 미연준의 통화긴축 스탠스 관련 불확실성과 실리콘밸리은행을 비롯한 중소 미국은행들과 크레딧스위스은행 사태 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요인으로 새롭게 부각

이에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은 금융안정이 저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비할 필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부실위험을 최소화하고 규제 유연화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한편, 부동산 PF 및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등 주요 금융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시장상황별 대응방안을 준비하여 위험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

이와 함께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차원에서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개선 방안과 함께 금융기관의 선제적 자본확충 등 자구노력을 위한 유인책도 지속적으로 강구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기 촉발요인을 조기에 정확히 포착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모니터링 영역을 보다 확장하는 등 조기경보기능을 한층 강화